

# '판타지아 조선' 민화 세계로

앎문화전당 김세종민화컬렉션 순회전  
산수·화조·문자도·책거리 등 60여점  
14일~내년 2월 10일 문화창조원



까치 호랑이

최근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현대화랑 등에서 열린 대규모 민화전은 많은 화제를 모았고 민화를 창작하는 인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자도, 책거리, 화조, 산수, 삼국지, 구운몽, 까치호랑이 등 다양한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도 열린다.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Fantasia Joseon)' 순회전시가 14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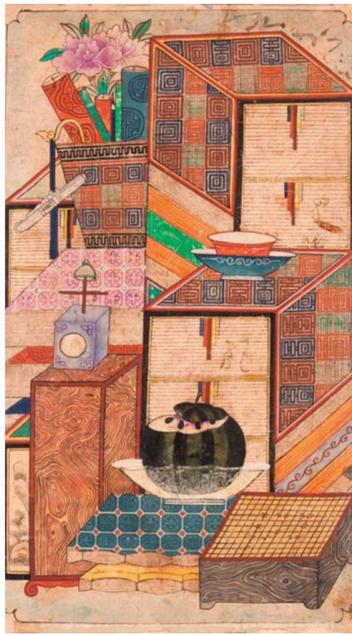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광주는 행창립 50주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3주년 기념 전시로 올해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호응을 얻은 인기 기획전이다. 전시 제목 '판타지아 조선'은 조선이 만들어낸 환상의 이미지(fantasy)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김세종(명창아트 대표) 컬렉터가 수집한 수많은 민화 작품 가운데 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무엇보다 서(書)와 화(畫)를 아우르는 필묵의 전통을 계승하며 조형적 참신성, 공간과 시각의 자유로움, 해학과 포용이 담긴 민화만의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전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꽃피고 새 날아 오르니-화조(花鳥)'에서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화려한 꽃그림 병풍이 전시되며 2장 '산도 높고 물도 깊네-산수(山水)'에서는 '관동팔경도(關東八景圖)' 등 정선으로 대표되는 조선 문인화의 산수화는 다른 민화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날 수 있다.

3장 '사람 사는 동네마다 이야기 끝이 없고-고사(故事)'에서는 관운장의 힘과 담력을 묘사한 '삼국지도(三國志圖)'와 '구운몽' 등 민간에서 회자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적 공간에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4장 '기리고 비유나니-도석(道釋), 서수(瑞獸)'에서는 서민들의 염원을 담은 소박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유교적 질서가 더 이상 백성의 염원을 담아주지 못할 때 민중들은 조선사회에서 억눌렸던 신선사상과, 불교무속에 흡수됐고 그 모습들은 민화에 고스란히 재현됐다. 호랑이, 고양, 개 등은 복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신의 전령



책거리

들로 바뀌었으며 대표작 '까치호랑이'에서 보듯, 까치와 호랑이는 친구가 되고 작품 배경 역시 산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재미있는 환상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5장은 '글자마다 꿈을 담아-문자도(文字圖)' 섹션이다. 글을 중시하는 선비사회에서 지나친 글씨의 배타적 우월의식은 그림에 대한 천시로 이어졌지만 민화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장식요소가가미된 흥미로운 문자도가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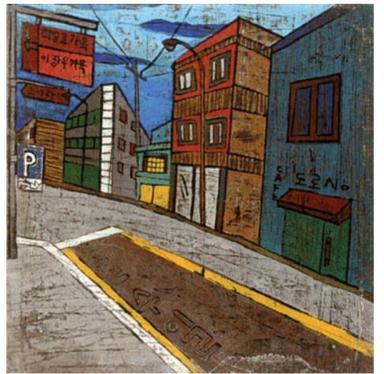
6장 '내일을 그리다-책거리'에서는 책가(冊架), 또는 책과 관련된 기물 등을 함께 그린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책거리도(冊距里)'의 책들은 아름다운 장식이 그려진 책가에 쌓여 있고 필통, 편지, 붓, 부채 등이 함께 자리한다.

티켓 가격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판화인 듯 회화인 듯 양림동 골목길 이민 개인전 19일까지 양림미술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만나는 김 양림동의 골목골목 풍경이다. 멀리 보이는 양림교회, 푸른 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진 한화원미술관, 미광의상실 앞에 놓인 파라솔, 낡은 수레가 자리한 누군가의 집앞 등등. 양림동을 방문해 본 이들이라면 "아, 저곳"하며 반갑게 알은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다.



'풍경'

이민 작가 개인전이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양림미술관 기획 초대전인 이번 전시 주제는 'Y 스토리', 양림동 이야기다.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전시작들은 회화처럼도, 판화처럼도 보인다. 거칠 거칠하고 숨결이 살아있는 판화의 매력을 살리고 동시에 기존 판화보다 색 표현이 자유로워 다채롭고 명징한 색감을 얻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작들은 이 작가가 최근 상표 등록까지 마친 '판타블로' (Pan Tableau) 기법으로 제작됐다. 판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그는 '우드락 보드판'에 프레스를 쓰지 않고 손의 힘과 툴러만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이 작가는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판화를 부전 공하며 관심을 가졌고 일본 명문 다마 미술대학원에서 판화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일본에서 인기 작가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69번째 개인전이자 광주에서 26년만에 갖는 전시다. 전시에는 평면 작품 26점을 내 걸었으며 지하공간에서는 작업 변천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보여준다.

경기도 의왕시에 작업실을 둔 그는 20여년 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고향에 대한 추억을 소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봉선동을 비롯해 줄곧 소재동, 방림동 등 양림동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양림동을 찾아 "나만의 시선으로, 골목 풍경들을 조망하고 그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가는 전국무등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요코하마 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10-8954-34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관, 안녕하십니까'

###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학술심포지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14일 오후 1시 30분 본관 세미나실에서 '미술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동시대 미술관의 변화에 맞춘 광주시립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다.

1부에서는 김세준 수명여대 교수의 '미술관의 시선으로 본 도시, 도시재생, 시민', 장민한 조선대 교수의 '탈역사적 미술관의 등장과 연구 협업의 필요성', 김희영 국민대 교수의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과 미술사학 연구의 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는 임근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2팀장의 '동시대 미술의 변화, 어떻게 전시에 담을 것인가?'를 시작으로 박남희 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부장의 '문화예술기관의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 김만석 독립연구자의 '광주, 2018년 겨울 그리고 미술관(혹은 대피소)'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들과 함께 미술관 운영과 역할, 경영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613-7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소프라노 강숙자 교수 정년퇴임 '동행' 음악회

### 오늘 전남대 민주홀서

소프라노 강숙자(사진) 교수 정년퇴임 기념음악회 '동행'이 13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40년간 몸담았던 전남대학교를 떠나는 강교수를 위해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마련한 공연이다.

음악학과 재학생들의 합창 '향수'와 '바람의 노래'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장은



지, 메조 소프라노 오지영, 알토 박순영씨가 '베를레노래'를 부르며 베이스 조규철이 '산촌'과 영화 '대부' 중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를 선사한다.

또 소프라노 윤한나와 테너 윤승환이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를 들려주

고 강숙자 교수가 '산', '내 맘의 강물'을 부른다. 피아노 반주는 동수정·김한나씨가 맡으며 첼리스트 윤소희, 테너 김정규, 소프라노 손숙경씨도 함께 한다.

경희대 음악대학과 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필름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졸업 후 전남대에서 성악을 가르쳐온 강 교수는 2000년 강숙자 오페라 라인을 창단, 매년 정기 공연을 진행, 지역 오페라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 조직위원회(소극장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애창곡 모음, 성악곡집 등 5장의 CD를 발간했으며 한국음악협회 음악상 공로상, 전남대 융복합예술상을 수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 3,000원

돈까스 코스 .....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